

농산물 공동계산제의 성과와 과제

이한성 · 조재환 · 최세현(밀양대학교 산업경제학과)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 III. 공동계산제의 성과 분석 |
| II. 공동계산제의 추진 실태 | IV. 공동계산제의 향후 과제 |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농산물 소비의 고급화에 부응하여 엄격한 품질등급 기준과 신선도와 안전성을 지키는 규격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농산물 도 소매업이 할인점,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대형화, 체인화 됨에 따라 엄격한 품질등급 기준에 의해 생산된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한 대량생산 및 대량유통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농산물 거래형태와 유통질서가 재편되어가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제도의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거래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구책 중의 하나로 공동계산제에 의한 출하방식의 본격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작목반에서 사과, 토마토, 풋고추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향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공동판매는 다수의 영세한 농가들이 판매물량을 규모화 함으로써 농가의 시장교섭력과 유통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출하 형태로서 공동계산과 같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에 따라 출하물량을 규모화 함으로써 개별 농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계산제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농가의 시장교섭력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동계산제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공동계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실제 공동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동계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성향과 의견을 수렴하고, 둘째, 사례지역의 공동계산 정산서류를 이용하여 공동계산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공동계산제의 추진 실태

1. 공동계산제의 의미¹⁾

공동계산이란 개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주별이 아닌 등급별로 구분하여 공동으로 관리·판매한 후 판매대금과 비용을 평균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공동출하의 한 형태로서 개별계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관계없이 총 판매대금을 등급별 출하물량에 따라 배분한다.

작업인부 공동고용, 농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도 넓은 의미의 공동계산이라 할 수 있으나 공동계산의 기본적 의미는 판매대금의 공동계산에 있다.

공동계산제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출하물량을 규모화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단점으로는 여러 가지 품질의 생산물을 혼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평균가격을 저하시키고 또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현실적으로 공

1) 김홍배·임영선(1998)에서 인용함.

공동계산은 도입에 어려움이 많다. 공동계산제의 일반적 추진 절차는 주로 농산물 수확 이후의 단계인 수집, 선별, 출하, 대금정산까지의 과정을 참여농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2. 공동계산제의 추진실태 분석

공동계산제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양고추의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무안농협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여 참여농가의 성향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참여농가 일반 개황

현재 무안농협의 청양고추 공동계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초기에는 31농가였으나, 소규모 재배에 따른 수확 일손 확보에 어려움이 없거나 또는 재배기술이 뛰어난 선진 농가로 특·상품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동계산제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몇 농가가 탈퇴하여 현재 21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농가 선정은 어느 지역 특정 작목반을 한정하기보다는 무안면 소재 다수 부락 농민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한편, 무안면 전체에 대한 공동계산제 참여농가의 생산 비율은 식부면적 기준으로 5.0%이고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6.9%이다.

〈표 1〉 공동계산제 참여농가의 생산 비율

구 분	식부면적(ha)	생산량(톤)
공동계산제 참여농가(A)	9	480
무안면 전체(B)	180	7,000
비 율 (A/B)	5.0 %	6.9 %

공동계산제 참여농가의 재배면적 분포는 1,200평 미만의 소규모 재배농가가 전체 참여농가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1,800평 이상의 대규모 재배농가는 2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공동계산제 참여농가의 재배면적 분포

구 분	계	600평~ 900평	900평~ 1200평	1200평~15 00평	1500평~ 1800평	1800평~ 2100평
농가수(명)	21	7	4	4	0	6
구성비(%)	100.0	33.3	19.0	19.0	0.0	28.6

공동계산제 참여농가의 청양고추 재배경력 분포를 살펴보면 재배경력 9년 이상 되는 농가가 참여농가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참여농가가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3〉 공동계산제 참여농가의 청양고추 재배경력 분포

구 분	계	1~2년	3~5년	6~8년	9~11년	12년이상
농가수(명)	21	0	2	3	8	8
구성비(%)	100.0	0.0	9.5	14.3	38.1	38.1

2.2. 공동계산제의 추진 동기

공동계산제에 참여한 동기를 설문한 결과 상당수 농민(76.2%)들은 산지 물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 하에 공동계산제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선별 작업의 시간 절약이나 높은 수취가격을 기대한 농가는 각각 4.8%와 1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공동계산제 참여 동기

단위 : 명(%)

재배면적 규모	응답자수	조합원의 권유	산지 물류의 표준화 필요	선별 작업 시간 절약	높은 수취 가격 기대
1000평 미만	11(100.0)	0(0.0)	8(72.7)	0(0.0)	3(27.3)
1000평 이상	10(100.0)	0(0.0)	8(80.0)	1(10.0)	1(10.0)
계	21(100.0)	0(0.0)	16(76.2)	1(4.8)	4(19.0)

2.3. 공동계산제 실시 과정

〈수확작업〉

청양고추 육묘를 정식한 후 3개월이 지나 본격적으로 수확 및 출하하는데 수확작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하나는 7일간 고추가 자라도 록 하고 이어서 1~2일간 고추를 수확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5일간 매일 수확을 하고 1~2일간 수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1~2일간 수확작업과 동시에 적기 출하를 위한 선별작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노동력 부담이 단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요일에 출하물량이 집중됨으로써 출하물량 과소·과잉에 따라 출하물량이 안정적으로 소비지에 공급되지 못하여 시장교섭력이 취약하고, 선별장의 유희인력으로 인건비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공급과잉에 따른 선별 지연으로 품질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통상 주중 금요일의 경우 다른 요일에 비해 출하물량의 시세가 좋으므로 대다수 농가가 적기에 노동력을 확보하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요일의 경우 물량의 평소에 비해 20%정도 높고 시세도 평균보다 10%정도 높은 수준이다.

〈수집작업〉

농가가 직접 수확한 후 개인 수송차량에 의해 공동선별장으로 집하하는데 공동선별장 조장은 판매처 주문량에 따라 일별 출하량을 조정하기 위해 참여 농가에게 수확물량을 수시로 통고한다.

농가 대부분은 기대 수취가격이 높은 일자에 집중 출하하기 위해서 수확 인력확보에 주력하고 따라서 요일별로 출하물량이 불안정적이므로 물류센터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다. 물류센터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시장교섭력이 약화된다. 농가간에 1개월 시차를 두고 육묘 정식을 할 경우 수확물량이 안정적이고 고품질 청양고추를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으나 농가간 정식시기 시차조정에 합의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선별작업〉

현재 건평 50평 규모의 선별장이 있으나 밀양시 지원으로 100평 규모의 선별장을 추가 건설 계획 중이다. 선별방법은 선별장 조장(남자 1명)이 집하된

청양고추를 선별기로 이동해서 컨베이어벨트에 투하한 후 선별원이 이동되는 청양고추를 육안 및 수작업으로 선별한 후 참여농가별로 품질 등급별(특, 상, 하품) 선별량을 기록한다. 등급은 특품, 상품, 하품의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포장 단위는 4kg, 10kg 박스 두 종류이다. 박스 상단에 공동계산제에 의해 선별되었음을 문구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동선별에 의한 고유 상표명은 없다.

선별기준은 고추의 길이, 색깔, 모양, 육질, 꼭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선별비용은 10kg박스 당 1,000원을 부담한다. 품질등급은 수확 시기 초기에는 품질이 우수한 반면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고추 길이가 짧고 굵기가 두꺼워지며, 홍초가 늘고 병충해 피해 등으로 품질 등급이 하락한다.

〈출하작업〉

주요 출하처는 물류센터, 도매시장, 산지 공판장 등인데 물류센터에의 출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동선별과 개별농가 선별에 의한 것이 함께 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에 공동으로 상장될 경우 개별농가 선별에 의한 것 중 속박이나 표준등급 미달 상품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크게 동반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공동 선별된 특, 상품 고추는 물류센터에, 그리고 일반 선별 고추는 산지공판장이나 또는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물류센터에서는 수의경매를 통해 공동 선별된 청양고추 구입가격을 가락동 상품 최고가격시세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선별과정에서 하품 처리비용이 일반출하의 경우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수취가격은 산지공판장이나 도매시장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3. 사례지역의 공동계산제 출하 분석

공동계산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을 위하여 사례농협의 2001년 4월 15일부터 6월29일까지 11주간의 공동계산제에 의한 청양고추 출하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3.1. 출하처별 출하 실적

11주 동안 공동계산제에 의해 출하된 물량은 총 196,462kg인데 이를 출하처별로 살펴보면 물류센터로 출하되는 물량이 49.4%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산지에서 경매되는 물량이 31.1%, 가락공판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이 17.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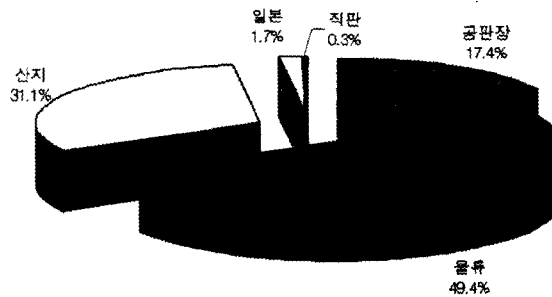
〈표 5〉 출하처별 출하 실적

출하처별	가락공판장	물류센터	산지	일본	직판	계
출하물량(kg)	34,220	97,053	61,183	3,330	676	196,462
구성비(%)	17.4	49.4	31.1	1.7	0.3	100.0

3.2. 출하처별 등급 구성비

출하물량의 상품 등급 구성을 살펴보면 물류센터로 출하되는 경우의 특품 비율이 92.1%로 다른 출하처의 특품 비율에 비해 가장 높고 가락공판장의 특품 비율은 85.3%이다. 산지판매의 경우 가장 등급이 낮은 중급 비율이 92.0%로 전반적으로 등급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출하처별 출하물량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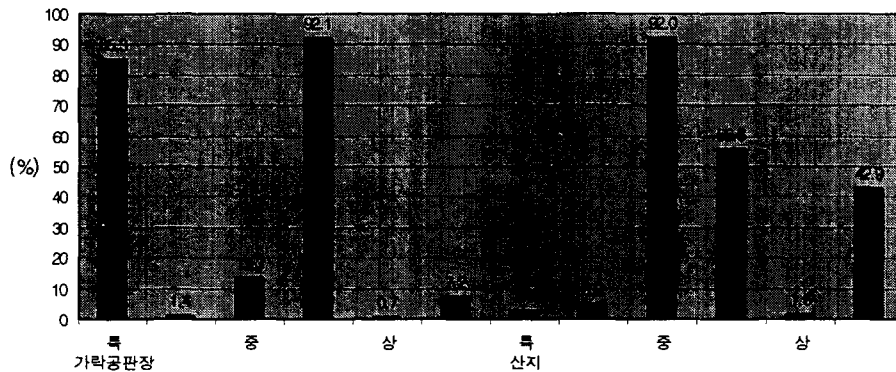


〈표 6〉 출하처별 등급 구성

출하처	가락공판장				물류센터				산 지				직 판			
	특	상	중	계	특	상	중	계	특	상	중	계	특	상	중	계
구성비(%)	85	2	13	100	92	1	7	100	3	5	92	100	56	1	43	100

3.3. 요일별 출하실태 분석

〈그림 2〉 출하처별 등급 구성비



공동계산제 출하물량을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이 전체 물량의 2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금요일이 18.1%이며 다른 요일은 12-14% 내외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락공판장에 출하되는 경우에는 출하물량의 36.2%가 월요일에, 19.9%가 금요일에 출하됨으로써 요일별로 집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금요일(22.7%), 일요일(19.5%)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 7〉 공동계산제 출하물량의 요일별 구성

단위 : %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계
가락공판장	36.2	11.7	7.0	11.2	13.9	19.9	100.0
물류센터	19.5	15.0	13.9	15.1	13.7	22.7	100.0
산지	31.7	14.6	12.4	15.4	16.0	9.9	100.0
일본	73.0	12.0	0.0	3.0	0.0	12.0	100.0
직판	3.6	2.1	12.4	12.1	28.4	41.4	100.0
계	27.1	14.2	12.0	14.3	14.3	18.1	100.0

출하물량의 등급 구성을 요일별로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금요일의 등급이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락 공판장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요일의 특품 비율은 9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금요일의 특품 비율은 47.9%에 지나지 않으며,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금요일(80.4%)의 특품 비율이 다른 요일(92.6% - 98.5%)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공동계산제 출하물량의 요일별 등급 구성

단위 : %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계
가락공판장	특	90.7	94.0	96.4	100.0	100.0	47.9	85.3
	상	0.5	0.0	3.6	0.0	0.0	4.7	1.4
	중	8.8	6.0	0.0	0.0	0.0	47.4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물류센터	특	94.7	98.5	92.6	94.6	97.8	80.4	92.1
	상	0.6	1.5	1.6	0.0	0.0	0.4	0.7
	중	4.7	0.0	5.8	5.4	2.2	19.2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지	특	5.8	0.0	0.0	1.2	3.5	3.7	2.9
	상	5.8	3.9	2.2	5.5	6.1	5.3	5.0
	중	88.4	96.1	97.8	93.3	90.5	91.1	9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판	특	100.0	28.6	4.8	39.0	94.8	46.4	55.6
	상	0.0	0.0	0.0	0.0	5.2	0.0	1.5
	중	0.0	71.4	95.2	61.0	0.0	53.6	4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동계산제 출하물량의 요일별 판매가격을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화요일이 2,268원/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목요일이 1,858원/k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출하처별로 살펴보면 특품을 기준으로 물류센터가 2,483원/kg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표 9〉 공동계산제 출하물량의 요일별 판매가격

단위 : 원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평균
가락공판장	특	1,926	2,114	2,571	1,775	1,919	1,726	1,958
	상	1,435	-	1,326	-	-	1,529	1,479
	중	921	607	-	-	-	1,111	1,039
	계	1,835	2,024	2,526	1,775	1,919	1,425	1,829
물류센터	특	2,477	2,444	2,823	2,715	2,243	2,278	2,483
	상	1,424	1,261	565	-	-	1,840	1,142
	중	1,187	-	1,495	1,945	1,400	1,283	1,375
	계	2,411	2,426	2,710	2,673	2,224	2,086	2,395
산지	특	1,770	-	-	1,318	1,665	3,520	1,939
	상	1,366	1,450	1,637	1,482	1,333	1,353	1,402
	중	1,381	1,407	1,404	1,245	1,299	1,489	1,364
	계	1,403	1,409	1,409	1,259	1,313	1,557	1,383
일본	특	1,912	1,872	-	2,112	-	5,503	2,345
	상	-	-	-	-	-	-	-
	중	-	-	-	-	-	-	-
	계	1,912	1,872	-	2,112	-	5,503	2,345
직판	특	2,167	2,500	4,000	2,438	2,478	2,692	2,545
	상	-	-	-	-	1,200	-	1,200
	중	-	1,200	1,250	1,200	-	1,760	1,503
	계	2,167	1,571	1,381	1,683	2,411	2,193	2,078
평균	특	2,222	2,364	2,784	2,502	2,150	2,270	2,349
	상	1,374	1,376	1,093	1,482	1,331	1,492	1,371
	중	1,346	1,385	1,411	1,302	1,302	1,332	1,344
	계	1,886	2,035	2,268	2,071	1,857	1,909	1,979

Ⅲ. 공동계산제의 성과 분석

1. 참여농가의 자체 평가

공동계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계산제 실시 후 어떤 성과를 가장 많이 얻었는가'라는 설문을 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수확 후 선별작업에 드는 노동시간이 절약되었다는 농가가 전체 참여 농가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산지물류 표준화에 기여했다는 농가가 23.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동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소득이 늘거나 줄어들었다는 농가의 비율은 9.5%의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0> 공동계산제의 참여농가 자체평가

단위 : 명(%)

청양고추 재배면적	계	높은 수취 가격 보장	선별 작업 시간 절약	산지물류의 표준화 기여	낮은 수취 가격 감수
1000평미만	11(100.0)	0 (0.0)	8(72.7)	3(27.3)	0(0.0)
1000평이상	10(100.0)	2(20.0)	6(60.0)	2(20.0)	0(0.0)
계	21(100.0)	2(9.5)	14(66.7)	5(23.8)	0(0.0)

'앞으로도 공동계산제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웃 농가들에게 공동계산제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표 11>과 같이 공동계산제에 대한 농민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참여농가의 76.2%가 앞으로도 공동계산제에 계속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웃농가 참여를 권유할 것으로 답하고 있다.

<표 11> 공동계산제 향후 참여 의향

단위 : 명(%)

재배면적 규모	계	향후 본인 참여		향후 이웃농가참여 권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000평미만	11(100.0)	8(72.7)	3(27.3)	8(72.7)	3(27.3)
1000평이상	10(100.0)	8(80.0)	2(20.0)	8(80.0)	2(20.0)
계	21(100.0)	16(76.2)	5(23.8)	16(76.2)	5(23.8)

2. 유통업자의 평가

공동계산제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기 위해 가락동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의 청양고추 취급담당 직원으로부터 실태 현황 및 요구사항에 대해 면담한 결과 중 몇 가지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출하는 등급이 단순(2-3개 등급)한 반면 개별출하는 등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출하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으므로 등급의 다양성 면에서는 현재 개별출하가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공동계산제에서도 등급 또는 포장 단위의 다양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품질의 고도의 균등화가 공동출하 성공의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생산(토질, 정식시기 등 동일한 생산 조건)과 연계한 공동계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공동계산제에 의한 출하품의 품질이 더 우수하고 선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무안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인정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청양고추의 브랜드보다는 가격 위주로 구입결정을 한다고 한다.

끝으로, 공동계산제에 대한 전망은 대형할인점이 증가 추세이므로 소매점이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공동출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공동계산제에 의한 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계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품질의 다양화 및 균등화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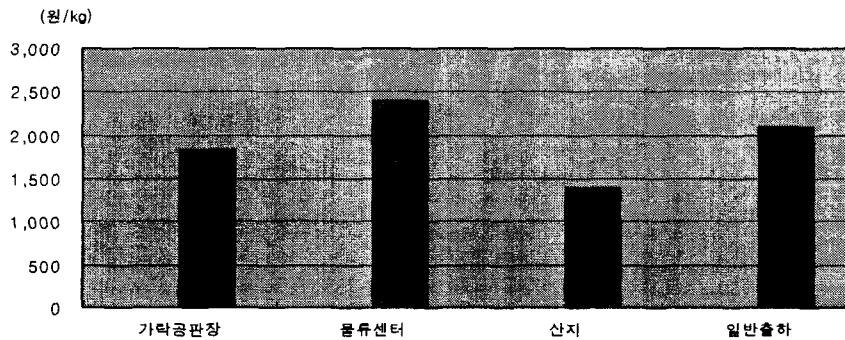
3. 판매가격의 비교

평균 판매가격을 출하처별로 비교해보면 물류센터가 2,395원/kg으로 가장 높으나 가락공판장은 산지는 각각 1,895원/kg, 1,383원/kg으로 일반출하(2,089원/kg)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동출하의 경우 평균 가격으로만 보면 물류센터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12〉 출하처별 평균 판매가격

구 분	판 매 가 격
가락공판장	1,829 원/kg
물류센터	2,395 원/kg
산지	1,383 원/kg
일반출하	2,089 원/kg

〈그림 3〉 출하처별 판매가격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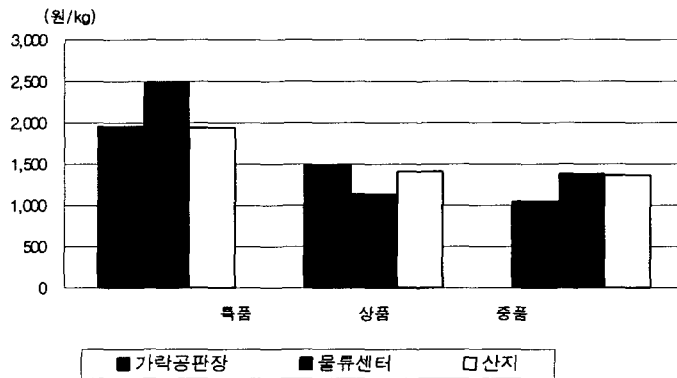


평균가격이 아닌 등급별 판매가격을 공동계산 출하처별로 비교해 보면 특품의 경우에는 물류센터가 가장 높은 수준이나 상품·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락공판장과 산지가 물류센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특품의 출하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물류센터 출하의 경우에 특품 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역시 물류센터에로의 출하가 가격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공동계산 출하처별 및 등급별 가격 비교

구 분	구분	판 매 가 격
가락공판장	특	1,958 원/kg
	상	1,479 원/kg
	중	1,039 원/kg
물류센터	특	2,483 원/kg
	상	1,142 원/kg
	중	1,375 원/kg
산지	특	1,939 원/kg
	상	1,402 원/kg
	중	1,364 원/kg

〈그림 4〉 공동계산 출하처별 가격 비교



4. 판매가격의 안정성

판매가격의 시기별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일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산지와 물류센터의 변동계수가 각각 0.32, 0.3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격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주일별 판매가격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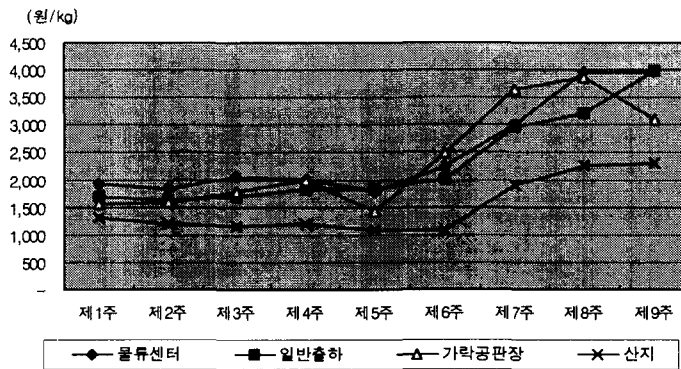
구 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표준 편차	변동 계수
가락공판장	1554	1593	1796	1980	1420	2476	3646	3871	3106	887	0.37
물류센터	1932	1829	2055	2008	1791	2235	3015	3956	3963	837	0.33
산지	1322	1208	1162	1209	1089	1078	1893	2271	2305	478	0.32
일반출하	1696	1631	1691	1840	1824	2002	2957	3218	3988	805	0.35

판매가격의 변화 추이를 요일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물류센터의 가격이 거의 모든 요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격의 안정성 면에서는 역시 가락공판장이 가장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의 출하처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나 물류센터의 경우 목요일 및 금요일의 가격이 다른 요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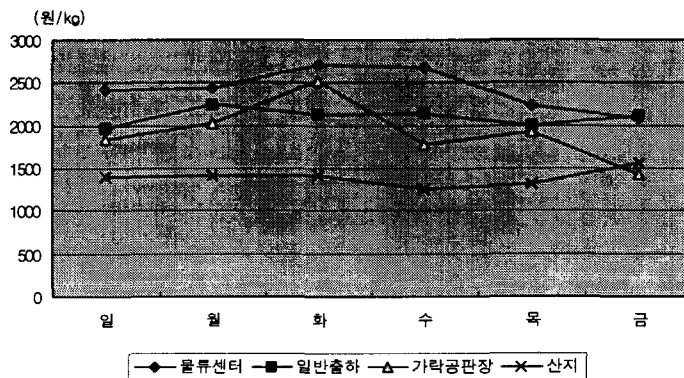
〈표 15〉 요일별 판매가격의 변화 추이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표준편차	변동계수
가락공판장	1,835	2,024	2,526	1,775	1,919	1,425	330	0.17
물류센터	2,411	2,426	2,710	2,673	2,224	2,086	223	0.09
산지	1,403	1,409	1,409	1,259	1,313	1,557	93	0.07
일반출하	1,971	2,237	2,127	2,143	1,994	2,114	91	0.04

〈그림 5〉 주일별 판매가격 추이



〈그림 6〉 요일별 가격 추이



IV. 공동계산제의 향후 과제

공동계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발전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계산제 초기단계에서는 산지 물류 표준화를 피하기 위하여 농민과 농협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참여농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소비지에 공급할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지에서 유통업자나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고유 브랜드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동계산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계속해서 농가가 이 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즉, 공동계산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농민 자신에게 더 유리해야 농가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뿐더러 품질의 균등화, 등급화, 표준화 등을 통해 산지유통 기반의 강화 및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출하 청양고추 수취가격이 일반출하의 그것보다 더 높고, 소비자들이 공동출하 브랜드를 더욱 더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 시장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마련되어 시장교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의 균등화 및 표준화, 등급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일반 가게소비자, 식당업자, 소매상, 대형할인 매장 등의 개별 선호를 면밀히 조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포장 사이즈, 등급, 상표를 개발해서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공동계산제가 정착되면 마지막으로 조합은 지속적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찾을 수 있도록 공동출하 비용절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출하 청양고추의 등급을 세분하고 표준화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참여농가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계산으로 생산 및 출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출하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단기적 기본전략 하에 공동계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참여농가를 확장한다. 향후 참여농가들의 성실한 참여와 공동계산제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참여농가를 확장시켜 출하물량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출하물량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유통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교섭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판매가격의 상승과 참여농가 수익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 참여농가의 확대를 통한 출하물량의 증대는 선별비용, 수송비용 등의 비용 측면에서도 비용체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둘째, 품질의 균등화 및 표준화를 도모한다.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출하상품의 품질이 균등하게 표준화하여 유통업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타 상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속박이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방지하여 당장 눈앞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셋째, 등급 및 포장 단위의 다양화를 꾀한다. 현재 상품의 등급이 특·상·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일반 가계소비자, 식당업자, 소매상, 대형할인 매장 등의 개별 선호를 면밀히 조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포장 사이즈, 등급, 상표를 개발해서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4kg박스 포장 단위로 판매하기보다는 1kg 포장, 200-300g 포장 단위로 다시 소포장해서 요식업자나 일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하품목을 다양화한다. 고추 이외에 공동출하 취급 품목을 확장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취급 품목의 다양화는 거래업체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동선별비, 수송비 등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공동출하 판매 인력의 전문성 증대로 시장별·품목별 출하량 및 출하시기 조절이 연중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개포 청양고추에 대한 이미지는 유통업자 단계까지는 인식이 되어 브랜드의 가치를 다소 인정받고 있으나 소비자에게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지 중심의 적극적인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의 청양고추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제고시킴으로써 시장독점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브랜드 홍보는 포장 디자인의 개량, 마스코트의 제작,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이벤트 개최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여섯째, 물류센터 출하비중을 높인다.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물류센터로의 출하 비중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의 균등화, 표준화 등 물류센터에서 원하

는 사항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일곱째, 출하물량을 시기별로 안배한다. 유통업자에게 거래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출하물량을 월별, 주일별, 요일별로 안배하여 출하물량이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가격의 등락, 수확인력의 확보 문제 등으로 물량을 불규칙하게 출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익 증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출하물량의 시기적 안배를 위해서는 참여농가의 수확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또 파종시기의 조정으로도 연결이 되므로 공동생산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여덟째, 공동생산 및 공동계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행의 공동계산제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생산과정도 공동으로 하는 공동계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생산 및 공동계산제가 도입되면 생산기술개발의 공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아홉째, 정부 및 단위농협의 지원을 확대한다.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출하선도금, 포장재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유통시설에 대한 정부투자시 시설설치 요건으로 공동계산·공동출하를 명문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 단위 농협의 공동계산제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김동환, “산지유통센터 운영개선방안-농협을 중심으로”, 농식품신유통연구회 제10차토론회 발표자료(2000), pp. 19-76.
- 김홍배·임영선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연구보고서 98-14, 1998.
- 농협중앙회, “공동계산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2000.
- 서기원·허희식, “농협판매사업과 공동계산”, 농협조사월보, 1987. 5.
- 姜暲求·長南史男, “野菜共選共販における農家のインセンティブ”, 日本 農業 經營研究, 1997.
- Martin A. Abrahamsen, “Cooperative Business Enterprise”, McGraw-Hill Book Company, 1976.